

下廬 黃德吉의 小學類 三書 考察

- 『東賢學則』을 중심으로 -

An Inquiry into Hwang Deok-Gil's Three Books of the Sohak Class

- With Special Reference to *DonghyunHakChik* -

김 순 희 (Kim, Soon-Hee)*

◁ 목 차 ▷

- | | |
|--------------|-------------------|
| 1. 緒言 | 3. 三書의 저술 과정 및 의의 |
| 2. 『東賢學則』 고찰 | 3.1 英祖의 『小學』 애호 |
| 2.1 편찬 배경 | 3.2 三書의 편찬 과정 |
| 2.2 편찬 동기 | 3.3 후대에의 영향 |
| 2.3 인용 인물 | 3.4 의의 |
| 2.4 인용 書目 분석 | 4. 結言 |
| 2.5 체재상의 특징 | <참고문헌> |
| 2.6 기술상의 특징 | |

< 초 록 >

본고는 下廬 黃德吉(1750~1827)이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소학류 三書인 『東賢學則』, 『初學可考』, 『日用輯要』 등의 특징과 의의를 밝힌 것이다.

이 서책들은 일관된 편찬의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므로 황덕길의 저술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황덕길은 스승인 順菴 安鼎福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소학류 저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가 이 3종의 서책으로 완성되었다.

『동현학칙』은 우리나라 선현들의 嘉言과 善行을 수집하여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초학자들이 학문의 길에서 추구해야 할 대원칙을 제시했다. 『일용집요』는 유학자들이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중국의 유학자들이 말한 내용을 발췌하여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동현학칙』과 다르다. 『초학가고』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동들이 유학을 공부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황덕길의 三書에 영향을 받은 소학류 서책의 대표적인 예로 陽田 李祥鎬의 『東學』과 進溪 朴在馨의 『海東續小學』, 金亨在의 『大東小學』 등을 들 수 있다. 조선 후기 출판문화 사상의 한 양상이기도 한 소학류 서책의 출현이 황덕길의 三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과 같이 황덕길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 서책들의 편찬에 임했는가를 살피고, 각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

접수일: 2014년 11월 28일 최초심사일: 2014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24일

각의 서책은 어떠한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가를 밝히며, 나아가 조선 후기에 있었던 소학류 서적의 편집과 간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규명하였다.

要語: 황덕길, 『동현학칙』, 『초학가고』, 『일용집요』, 『동학』, 『해동속소학』, 『대동소학』, 조선후기, 소학류

<ABSTRACT>

This is a study of the characters and the worth of “*DongHyunHakChick*”, “*ChoHakGaGo*” and “*IlWongJipYo*” compiled by HaReou HwangDuckGil as the books of SoHak class.

These 3 books well present HwangDuckGil’s writing style. He paid attention to write the SoHak books because he was directly affected by his teacher, Ahn-JungBock. Therefore these are the products of the results.

The contents of “*DongHyunHakChick*” include some good words and behavior. It was expressed the broad principle which should be followed by academic starters. “*IlWongJipYo*” is a same educational textbook as “*DongHyunHakChick*” for academic learners.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m is that “*DongHyunHakChick*” is edited wordings by Chinese scholars. “*ChoHakGaGo*” also includes teachings on ethics and morality for academic starters.

There are representative books affected by HwangDuckGil’s SoHak. These are “*DongHak*” written by YangJun LeeSangHo, “*HaeDongSokSoHak*” written by JinGae ParkJaeSung and “*DaeDongSoHak*” written by KimHyungJae. It implies that the emergence of the SoHak was from 3 books compiled by HwangDuckGil.

As mentioned above, this study examines the features of the SoHak class edited by HwangDuckGil and indicat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m. It also identifies how the HwangDuckGil’s SoHak type was deeply influenced by SoHak compilers and writers in the late Chosun Dynasty.

Key words: HwangDuckGil, “*DongHyunHakChick*”, “*ChoHakGaGo*”, “*IlWongJipYo*”, “*DongHak*”, “*HaeDongSokSoHak*”, “*DaeDongSoHak*”, the late Chosun Dynasty, SoHak class

1. 緒言

본고는 下廬 黃德吉(1750~1827)의 저술 및 편찬서에 대한 일련의 연구 과정의 하나로 시도된 것이다. 황덕길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유학자 중 하나이면서, 평생 관직을 도외시한 채 학문과 저술에만 몰두하였다. 이러한 그의 일생은 당시 지식인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황덕길의 저술 및 편찬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오다가, 그의 소학류 저술에 대하여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¹⁾ 그리고 이번에 관련 저술에 대한 고찰의 小結로서 『東賢學則』을 텍스트로 선정하여, 황덕길의 소학류 저술의 특징과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小學類라는 개념은 童蒙이나 初學者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학문에 입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익히고 배워야 할 내용을 정리한 교재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황덕길의 三書는 그가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東賢學則』, 『初學可考』, 『日用輯要』 등의 책을 말한다. 지금까지 『東賢學則』에 대해서는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初學可考』나 『日用輯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동현학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교육학적 관점에서 이 책이 초학교재로서 갖는 의의를 검토한 것이었다.²⁾ 이러한 경향은 『동현학칙』의 경우 일찍이 인쇄본으로 출간되어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었지만, 다른 두 종의 책은 필사본으로 전해져 왔으므로 그만큼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황덕길의 소학류 관련 3종의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 책들은 편저자인 황덕길이 일관된 편찬의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므로 황덕길의

-
- 1) 김순희, “황덕길의 독서론 고찰,” 『書誌學研究』 제53집(2012. 12), 221-238.
김순희, “하려 황덕길의 『초학가고』 고찰,” 『書誌學研究』 제58집(2014. 6), 227-246.
김순희, “하려 황덕길의 『일용집요』 고찰,” 『書誌學研究』 제59집(2014. 9), 149-174.
 - 2) 曹建鎬, “黃德吉과 東賢學則에 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啓明大學校 教育大學院, 1982).
金延信, “18세기 초학교재 東賢學則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教育大學院, 2003).
徐星宇, “小學 續編類에 관한 研究 - 『東賢學則』·『海東續小學』·『大東小學』을 중심으로 -, ” (碩士學位論文, 公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6).
丁淳睦, “東賢學則에 나타난 退溪의 教育觀,” 『民族文化論叢』 第10輯(1989. 12), 205-233.

저술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황덕길은 스승인 順菴 安鼎福(1712~1791)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소학류 저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가 이 3종의 서책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 책들이 황덕길의 저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황덕길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 서책들의 저술에 임했는가를 살피고, 각각의 서책은 어떠한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가를 밝히며, 나아가 조선 후기에 있었던 소학류 서적의 편집과 간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 된다.

2. 『東賢學則』 고찰

2.1 편찬 배경

『동헌학칙』의 편찬 배경을 살피는 중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안정복이다. 학문에 전념하던 황덕길은 스승인 안정복을 만나고 나서 학문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24살 되던 해에(1773) 황덕길은 어머니의 권유로 아버지와 동문수학했던 인연이 있는 안정복을 찾아가 문하생이 되었다. 안정복은 학문의 正道가 심오한 철학적 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에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가르침은 ‘下學’이라는 개념으로 황덕길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 황덕길은 스승의 말에 감동하여 자신의 號를 ‘下學을 실천하는 사람의 집’이라는 뜻의 ‘下廬’로 지을 정도였다. 안정복은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내어 황덕길을 격려했다.

편지 중에 독실하게 공부하는 뜻이 있으니 감탄해 마지않는다. 이 마음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루지 못하겠는가. 우리 선비들이 가장 중요하게 공부할 것은 오로지 下學에 있는데 그대의 형과 깊이 강론하였다. 그것을 실천하는

공부는 본래 따라할 만한 순서가 있으므로 나의 말이 필요 없을 것이고, 오랫동안 마음을 잡고 있다보면 자연스럽게 허다한 의리가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입으로 전할 수가 없고, 모두 착실하게 힘을 써서 그 진위를 경험해야 한다.³⁾

이 편지는 癸卯年(1783, 정조 7)에 안정복이 황덕길에게 보낸 것이다. 이 해에 안정복은 나이 72세인 노년이었고, 황덕길은 33세였다. 안정복이 강조한 것은 형이상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학적 덕목이었다. 안정복은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듯이 『下學指南』이라는 초학자들을 위한 교재를 편찬했다. 안정복은 29세(1740, 영조 16, 庚申)에 『下學指南』을 편찬했는데 이것은 그의 최초의 저서이다.⁴⁾ 안정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편찬의 동기를 밝혔다.

예로부터 배우는 자의 걱정은 대부분 먼 것에 힘쓰며 가까운 것을 소홀히 여기는 데에 있다. 때문에 몸과 마음이 날마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에 대해, 하루 12시간으로 분배하여 조목을 정하고 여기에 옛 성현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 중에서 下學에 해당하는 것을 배열했다. 『下學指南』이라고 이름을 붙여 평생 동안 사용할 자료로 삼는다.⁵⁾

下學上達은 기원전 공자로부터 程顥, 朱熹와 같은 성리학자들에게 계승되어 2000년이 넘게 유학 지식인의 의식 속에 이어져 내려 왔다. 안정복은 18세기 조선의 학자로서 『하학지남』이라는 저술을 통해 그 하학론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아주 체계적이고 精緻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였다.⁶⁾ 이러한 정황으로 추정해 볼 때, 황덕길은 안정복의 『하학지남』을 보고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3) 『順菴集』, 권8, 『答黃耳叟書』. “書中爲學槩槩之意 欽歎無已 此心不懈 豈有不成 吾儒着緊用工 專在下學 與伯君講討之深矣 其踐實工夫 則自有次序可循者 不待愚言 而收斂之久 自當有許多義理 見在目前 此不可以口傳 都在着實用力 以驗其眞僞.”

4) 이채구, “안정복의 『하학지남』,” 『순암 안정복의 서학인식과 교육사상』 (순암선생 탄신300주년 기념사업회, 2012), 309.

5) 『順菴集』 『年譜』. “十六年庚申 先生二十九歲 撰下學指南 先生以爲古來學者之患 多在於務遠忽近 乃於身心日用所當行之道 分排十二時 又列定條目 附以古聖賢嘉言善行 屬於下學者 名之曰下學指南 以爲平生取用之資.”

6) 조성애, “순암 안정복의 하학론,” 『한국교육사학』 제32권 제1호(2010. 4), 218.

그는 이 시기에 스승의 가르침으로 인해 자신의 학문을 일부 반성하면서 학문의 기본적 자세에 대해 심사숙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자각이 『동현학칙』의 편찬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2.2 편찬 동기

『동현학칙』의 서문과 발문을 살펴보면 편찬 동기 및 의도 등을 알 수 있다. 황덕길이 『동현학칙』을 편찬한 것은 그의 나이 37세 되던 해(1786, 丙午, 正祖 10)이다.⁷⁾

옛날에 楊文公(楊億)이 초학자들에게 날마다 예전의 일을 기록하게 하면서 반드시 孝悌를 먼저하고 忠信을 주로 하였으며 예의와 엄치로 이었으니, 朱子가 이것을 『小學』 「入教」의 항목에 실어 어린 학생들을 갖추어 가르쳤으니, 이것이 『東賢學則』이 편찬된 이유이다.⁸⁾

황덕길은 『동현학칙』의 직접적인 편찬 이유가 『小學』에 기재되어 있는 楊億의 말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역의 이 말은 『小學』 卷5 「嘉言第五」에 실려 있다.

양문공의 家訓에 “어린아이의 배움은 외우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良志와 良能을 길러야 하니 당연히 먼저 귀에 들어온 말이 주가 된다. 그러므로 날마다 옛일을 기록하는데, 고급에 구애받지 말고 반드시 孝悌, 忠信, 禮義, 廉恥 등의 일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⁹⁾

황덕길이 『동현학칙』을 편찬한 이유가 바로 초학자들의 교육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황덕길은 학문을 시작하는 어린 학동들에게 유학적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재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로 인해 이 책을 편찬하게

7) 『東賢學則序』, “上之十年 丙午午月朔 朝檜山黃德吉 書于南郭下廬.”

8) 『東賢學則序』, “昔者 楊文公令初學 日記故事 必先孝悌也 主忠信也 繼之以禮義廉恥 朱夫子迺載諸小學入教之目 具訓于蒙士 此學則之所以編也.”

9) 『小學』 卷5, 「嘉言第五」, “楊文公家訓曰 童穉之學 不止記誦 養其良志良能 當以先入之言 爲主 日記故事 不拘古今 必先以孝悌忠信禮義廉恥 等事.”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황덕길은 이전의 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스승인 안정복도 하지 못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 책의 편찬에 임했다. 황덕길은 양역이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식들을 교육하고자 했던 家訓의 예처럼, 그는 한국의 역사적 인물의 言行 중에서 초학자들의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수집,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동헌학칙』에서 꼭 東 자를 쓴 것은 왜인가? 세대가 가깝고 사실이 자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가깝고 자세한 것을 골랐는가? 가까우면 익히기 쉽고 익히기 쉬우면 따르게 되고 따르게 되면 그것이 들어움이 빠르기 때문이다. 자세하면 분명하고 분명하면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면 그것을 따르기가 쉽기 때문이다.¹⁰⁾

이와 같은 황덕길의 시도는 한국 소학류 서책의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 중의 하나이다. 황덕길은 초학자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선현들의 언행을 수집하여 교육의 자료로 사용한다면 배우는 자들이 더욱 절실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여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편찬을 완성한 것이다. 유학의 종주국이 중국이기는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한국인의 심성에 깊이 뿌리박힌 유학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선현의 언행은 충분히 초학교재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황덕길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유학의 가르침을 존중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한국 고유의 교육과 문화적 전통을 강조하였다.

우리 동방의 나라는 殷나라 太師 箕子가 교육을 시작한 고장으로서 2천여 년 동안 8條의 영향을 받은 풍속이 아직도 남아 있다. 본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여러 현인들이 배출되어 미묘한 말씀과 지극한 행동이 모두 법도를 준수하여 다 후학들의 準則이 되었다. 지금 다행히도 이 나라에 태어나 진실로 호걸 같은 선비를 기다리지 않아도 또한 우리나라 선현들의 풍모를 들으면 나약한 자들이 뜻을 확립할 수가 있다.¹¹⁾

10) 『東賢學則序』, “學而必曰東何 世之近也 事之詳也 何近爾何詳爾 近則習熟 習熟則順 順則其入也速 詳則明 明則信 信則其從也易.”

11) 『東賢學則序』, “我東方殷太師 肇教之鄉 歷二千有餘年 八條遺俗 猶有不泯 至昭代群賢輩

황덕길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학문적 전통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음을 위의 인용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東賢學則』 卷4 「善行」 上 「入教」 첫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箕子가 처음 조선에 왔을 때 백성들을 禮義로 가르치고 八條를 베풀어 금지하니,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아서 문을 닫는 집이 없었으며 아녀자들은 경조를 알고 믿음이 있어서 음탕하지 않았다. 토지와 도읍을 넓히고 그릇에 음식을 먹었으며 믿음과 사양함을 숭상하고 유학의 가르침을 돈독하게 하여 중국의 기풍을 양성했다.¹²⁾

황덕길은 이 기사의 말미에 출전을 『東史』라 밝히고, 이 항목의 내용인 八條에 대해서는 李瀾의 말을 인용하여 8조가 『서경』 洪範의 八政이라고 부연 설명했다.¹³⁾ 황덕길은 기자조선의 시작부터 우리나라가 예의와 법도를 아는 문화민족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과 대등한 유학적 기풍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황덕길의 자주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본으로 하여 이전의 典籍을 두루 열람한 황덕길은 제대로 정리된 서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서책을 편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러한 생각을 완성했다.

내가 일찍이 그들이 남긴 글과 기사를 보았는데 여러 책에 이리저리 흠어져 있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참람되고 망령스러움을 살피지 않고 요점을 편찬하여 감히 『小學』에서 정한 체례를 따라 종류별로 모아 편찬을 완성하고 『동현학칙』이라고 이름하였다.¹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완성된 『동현학칙』은 황덕길의 再傳弟子인 小訥 盧相稷

出 微言至行 履繩踏矩 皆爲後學則 今幸而生是邦也 固不待豪傑之士 而亦有聞其風而立儒者矣.”

12) 『東賢學則』 卷4, 「善行」 上, 入教. “箕子初至朝鮮 教民以禮義 設禁八條 其民不盜 無門戶之閉 婦人貞信不淫 辟其田野都邑 飲食以籩豆 崇信讓篤儒術 釀成中國之風.”

13) 『東賢學則』 卷4, 「善行」 上, 入教. “東史 李星湖曰八條洪範之八政也.”

14) 『東賢學則序』. “不佞嘗讀 其遺文及記事諸書 其言行 汗漫散出 未易求觀 於是 不揆僭妄 纂採其要 敢因小學定例 而彙輯之編成 名曰 東賢學則.”

(1855~1931)과 후손 黃洙建에 의해서 1917년(丁巳)에 간행되었다.¹⁵⁾ 노상직은 황덕길의 직계 수제자인 性齋 許傳(1797~1886)의 문하를 대표하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¹⁶⁾ 그리고 노상직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황덕길의 문집인 『下廬先生文集』의 간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이다.¹⁷⁾

나는 경진년(1880)에 스승이신 문헌공 허선생에게 이 『동현학칙』을 받아서 물러나서는 동지들과 함께 보았다. 하려 선생이 후학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世教를 도운 혜택을 비로소 남쪽 지방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널리 퍼지지 못함을 근심하던 중에, 금년 겨울 선생의 문집을 장자 간행하려고 일을 마쳤는데 黃洙建 군이 이 책만 책상자에 남아 있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비용을 대어 함께 간행하였으니 이 책이 조상에게서 나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현인들이 실천했던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니 느끼는 바가 있다. 정사년(1917) 12월 정해 후학 광주 노상직 삼가 기록한다.¹⁸⁾

黃洙建은 황덕길의 방계후손이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 노상직이 황덕길의 문집 간행을 완료하던 해인 1917년에 이 『동현학칙』도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동현학칙』이라는 것은 下廬 선생이 우리 동방의 현인, 군자들의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수집하여 『小學』을 공부하는 단계로 삼은 것이다. 나는 어려서 선생에게 배우면서 이 책을 받아 배웠으나 능치 못하였고 지금은 늙어서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동문인 벗 이상규가 손수 초록한 것을 빌려 읽으니 쓸쓸하게도 선생을 다시 뵈는 것 같다. 어린 아이들에게 배기도록 하여 죽기 전까지 항상 보기 위한 자료로 삼으며, 또한 후생들에게 보인다. 계유년(1873) 4월 입하 절 무오 문인 허전 77세가 쓴다.¹⁹⁾

-
- 15) 『東賢學則』은 필사본 등 몇 종의 판본에 관한 자세한 서지학적 고찰은 後考로 하겠다.
 16) 姜世求, “下廬 黃德吉과 順菴系列 星湖學派의 興起,” 『東亞研究』 제34호(1997), 207-233.
 姜동욱, “性齋 許傳의 江右地域 門人 考察,” 『南冥學研究』 제31집(2011), 224.
 17) 柳鐸一, “『下廬先生文集』 刊行의 出版社會學的 接近,” 『書誌學譜』 제10호(1993. 9), 35-39.
 18) 『小訥先生文集』 卷31, 『東賢學則跋』, “相稷庚辰歲受學則于先師許文憲公 退與同志共之下廬先生惠後學扶世教之澤 始衣被南方 然猶患其未及廣焉 今年冬刻先生文集後將詒黃君洙建不忍以此書更留篋衍 出貨并刻 其意不但以書之出于族矣 蓋欲令一時人士獲知東賢踐履之實 而有所感發云 強圉大荒落 涂月丁亥 後學光州 盧相稷敬識.”
 19) 『性齋先生文集』 권16, 『東賢學則跋』, “此學則者 下廬先生蒐輯我東方賢人君子嘉言善行

허전은 수학 초기에서부터 이 책을 접하였다. 당시에는 간본이 없었으므로 필사하여 보았는데, 세월이 지나 필사본마저 망실되어 동문인 이상규가 초록한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려 이 책을 배우도록 권고하였다. 여기에서 황덕길 문하에서 이 『동헌학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후에 노상직이 간행하면서 허전의 글을 跋文삼아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3 인용 인물

『동헌학칙』에 실명이 거론된 역대 인물은 242명이다.²⁰⁾ 신라의朴堦上, 金后稷, 고려시대의崔冲, 安裕, 禹倬, 李穡, 정몽주, 吉再 등을 시작으로 조선 전기의 인물에서부터 직전 시대의 인물까지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가장 인용 빈도가 높은 인물은 단연 退溪 李滉으로 175회이며, 다음으로는 栗谷 李珣인데 27회이다. 그 다음으로는 靜庵 趙光祖로 25회이며, 慕齋 金安國(17회), 南冥 조식(16회), 寒岡 鄭述(16회), 旅軒 張顯光(14회), 晦齋 李彥迪(12회), 蘇齋 盧守愼(11회), 寒暄堂 金宏弼(10회) 등이다. 특이하게도 중국 인물로는 程子가 2회 등장한다.

황덕길은 이이를 27회 인용했으며 牛溪 成渾(4회) 등 西人 계열도 소개했으나, 대부분이 東人 계열의 영남 사림인 것은 특징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직계 스승인 順菴 安鼎福이나 星湖 李瀾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편저자의 성향에 때문이겠지만 승려가 거론된 경우는 없으나, 靈山辛氏를 비롯하여 12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특히 아녀자의 범절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嘉言篇』 ‘明倫’의 <夫婦之別>에서는 여러 여성이 등장한다. 이것은 황덕길의 편찬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남녀에 구애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以爲小學之階梯者也 傳少學於先生 受此書 學而未能也 今老耄殆盡忘失 借同門友李祥奎手抄一本讀之 愀然如復見先生 使兒輩謄寫 以爲夕死前常目之資 且以垂示後生 癸酉四月立夏節戊午 門人許傳七十七歲書。”

20) 曹建鎬(1982), 32.

2.4 인용 書目 분석

『동헌학칙』에서 인용한 書目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후기의 출판양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이 책에서 인용한 서책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文集類: 『簡易集』, 『良齋集』, 『葛川集』, 『谿谷集』, 『高峰集』, 『南溪集』, 『南冥集』, 『魯西集』, 『訥翁集』, 『大谷集』, 『遜溪集』, 『東岡集』, 『東洲集』, 『東濱集』, 『東臯集』, 『晚全集』, 『明齋集』, 『慕齋集』, 『牧隱集』, 『白沙集』, 『栢潭集』, 『北渚集』, 『思齋集』, 『沙溪集』, 『西厓集』, 『蘇齋集』, 『睡隱集』, 『新齋集』, 『藥圃集』, 『藥泉集』, 『陽川覆瓿稿』, 『陽村集』, 『旅軒集』, 『蓮峰集』, 『五峰集』, 『梧里集』, 『牛溪續集』, 『龍門集』, 『龍淵集』, 『愚伏集』, 『月川集』, 『月澗集』, 『月沙集』, 『遊齋集』, 『栗谷集』, 『頓菴集』, 『認齋集』, 『齊山集』, 『佔畢齋集』, 『靜庵集』, 『正庵集』, 『重峰集』, 『芝山集』, 『滄江集』, 『清陰集』, 『清江集』, 『聽天堂集』, 『草堂集』, 『秋江集』, 『炭翁集』, 『澤堂集』, 『退溪集』, 『圃隱集』, 『浦渚集』, 『河西集』, 『鶴峰集』, 『漢陰集』, 『寒暄堂文集』, 『寒岡集』, 『花潭集』, 『晦齋集』 (총 71종)
- 史書類: 『高麗史』, 『國朝寶鑑』, 『東史』, 『三國史』, 『野史』 (총 5종)
- 地理志類: 『江陵志』, 『輿地勝覽』 (총 2종)
- 雜著類: 『關溪漫錄』, 『東京雜記』, 『東閣雜記』, 『東溪雜記』, 『東西問答』, 『記善錄』, 『撫松小說』, 『石潭日記』, 『惺翁識小錄』, 『星湖僂說』, 『雪巖雜記』, 『松齋雜記』, 『野言通載』, 『於于野談』, 『慵齋叢話』, 『竹泉閑話』, 『芝峰類說』, 『青坡劇談』, 『青野漫輯』, 『秋江冷話』, 『筆苑雜記』, 『閑溪漫錄』, 『海東野言』 (총 23종)
- 雜記類: 『景賢錄』, 『公私見聞錄』, 『己卯錄補』, 『己卯錄』, 『記言』, 『東儒錄』, 『名臣錄』, 『戊寅記問錄』, 『四科錄』, 『師友錄』, 『守愚錄』, 『言行拾遺』, 『言行通述』, 『愚得錄』, 『儒先錄』, 『遺聞錄』, 『李氏景遠錄』, 『因繼錄』, 『前言性行錄』, 『尊彝錄』, 『蒼石異聞錄』, 『忠烈錄』, 『沖齋集』, 『恥齋日錄』, 『澤南雜錄』, 『退溪言行錄』, 『鶴峰言行錄』, 『寒岡言行錄』, 『黃思記事』 (총 29종)
- 單行本類: 『擊蒙要訣』, 『內範』, 『海東樂府』, 『下學指南』 (총 4종)
- 經學類: 『四書質疑』, 『性理說』, 『心經質疑』 (총 3종)
- 기타: 言行錄, 師友錄 다수

인용한 서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70여 종에 이르는 문집류의 경우, 당시까지 간행된 문집의 대부분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잡저류와 잡기류의 다양한 종류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史書 및 地理志, 經學類까지 여러 분야의 서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독서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星湖僿說』이나 『下學指南』 등을 분명히 읽었으나, 이익과 안정복은 인용하지 않은 것에서도 황덕길이 확실한 편집자의 자세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헌학칙』 권3, 『嘉言』 下에는 정구가 이이에게 준 편지를 인용한 부분이 있다. 寒岡 鄭述의 『寒岡集』 續集 권2, 『書』에는 <答李叔獻>이라는 제목으로 이이에게 보낸 답장만이 1편 실려 있는데, 『동헌학칙』의 내용과 다르다. 그리고 현전하는 『寒岡集』²¹⁾에 『師友錄』이라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황덕길이 다른 제목의 『師友錄』에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동헌학칙』 권3, 『嘉言』 下에 旅軒 張顯光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 있다. 이를 다시 확인해 보니 『旅軒集』 권6, 『雜著』에 <座壁所題>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는데, 후반부에 『座壁題省』이라는 소제목으로 구분한 도표가 있다. 황덕길이 인용한 것은 이 부분인데 기사의 말미에 『性理說』이라고 출전을 밝혀 놓았다. 장현광은 『性理說』을 비롯하여 몇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황덕길은 『旅軒集』에 실린 것이 아니라 이 『性理說』에 수록된 것을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0대 초반이었던 황덕길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서책을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독서영역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조선시대의 출판문화가 발전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²⁾

2.5 체제상의 특징

황덕길은 『동헌학칙』을 편찬하면서 『소학』의 定例를 따른다고 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소학』의 체제와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다. 체제는 크게 嘉言과 善行으로 구분하였고, 그 안에는 각기 立教·明倫·敬身으로 세분되어 있다.

21) 『韓國文集叢刊』 60, 『寒岡集』.

2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別稿로 하겠다.

또 가언의 입교는 國學·家塾·가정으로 나누었고 말미에 通論을 달았다. 明倫은 五倫에 입각하여 구분하였고, 역시 말미에 通論이 붙어 있다. 경신은 心術·威儀·의복·음식으로 나누어 要則과 制度를 논하였으며 역시 말미에 通論이 있다.

<표 1> 『소학』과 『동헌학칙』의 체제 비교

분류		소학		동헌학칙			
內篇	立教篇		13장	없음			
	明倫篇	明父子之親: 39장	108장	—			
		明君臣之義: 20					
		明夫婦之別: 9					
		明長幼之序: 20					
		明朋友之交: 11					
通論: 9							
敬身篇	明心術之要: 12	46장	—				
	明威儀之則: 21						
	明衣服之制: 7						
	明飲食之節: 6						
稽古篇	立教: 4	47장	—				
	明倫: 31						
	敬身: 9						
	通論: 3						
(소계)	214장		-				
外篇	嘉言篇	廣立教: 14	91장	立教	國學之教: 5장	26장	287장
		廣明倫: 41			家塾之教: 5		
					家庭之教: 5		
		廣敬身: 36			通論: 11		
	明倫			父子之親: 16	70장		
				君臣之義: 15			
				夫婦之別: 11			
				長幼之序: 8			
				朋友之交: 14			
	通論: 6						
	敬身			心術之要: 56	191장		
		威儀之則: 22					
衣服之制: 6							
飲食之節: 9							
通論: 98							

분류		소학	동현학칙				
外篇	善行篇	實立教: 8	81장	立教	國學之教: 5	38장	427장
		實明倫: 45			家塾之教: 14		
		實敬身: 28			家庭之教: 11		
					通論: 8		
	明倫		父子之親: 29	179장			
* 君臣之義: 34							
夫婦之別: 25							
長幼之序: 30							
(소계)	172장	총 386장	714장	총 714장	朋友之交: 38	210장	
					通論: 23		
					敬身		心術之要: 49
							威儀之則: 41
							衣服之制: 20
飲食之節: 46							
通論: 54							
합계							

* 표시는 善行篇 '君臣之義'만 序章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만약 각 장의 맨 앞에 나와 있는 序章까지 그 수를 합한다면 『동현학칙』의 총 章數는 743장에 이른다.

황덕길은 『소학』의 정례를 따른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內篇은 제외하고 外篇에 해당하는 부분만 편찬했다. 이에 대해 명확하게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소학』의 내편은 入教, 明倫, 敬身, 稽古 등의 4편으로 되어 있고, 외편은 嘉言과 善行의 2편으로 분류하여 내편의 4편에서 말한 내용을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황덕길은 외편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충실히 정리하는 것도 『소학』의 체재를 준수한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입교편의 경우, 『소학』에서는 자세히 분류하지 않았으나, 『동현학칙』에서는 國學之教, 家塾之教, 家庭之教, 通論으로 세분하여 내용이 더욱 자세하게 되었다. 다만 내편의 稽古篇이 빠져 있는데, 『소학』의 계고편은 漢나라 이전 인물들의 자취를 기록한 것이므로²³⁾ 우리나라 선현의 언행을 수집하여 편찬하고자 했던 원래의 의도에

23) 金延信(2003), 31.

어긋날 수 있으므로 누락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稽古의 내용은 嘉言과 善行의 實例에서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6 기술상의 특징

인용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姓과 號나 諡號를 쓰고 그 아래 소자쌍행으로 名과 字, 간략한 소개 내용을 기록했다. 몇 개의 예를 들어본다.

- 退溪 李先生: 名滉 字景浩 明宣朝大儒
퇴계 이선생: 이름은 황, 자는 경호. 명종과 선조대의 대유.
- 李栗谷: 名珥 字俶獻 宣廟朝 儒臣
이율곡: 이름은 이, 자는 숙헌. 선조대의 유신.
- 鄭寒岡: 名述 字道可 退溪弟子
정한강: 이름은 구, 자는 도가. 퇴계의 제자.
- 李文翼公: 名德馨 字明甫 宣廟朝名相
이문익공: 이름은 덕형, 자는 명보. 선조대의 명재상.
- 申松溪: 名季誠 字子誠 南冥之友
신송계: 이름은 계성, 자는 자성. 남명의 친구.
- 成大谷: 名雲 字健叔 明宣朝高士
성대곡: 이름은 운, 자는 건숙. 명종과 선조대의 높은 선비.
- 姜介庵: 名翼 字仲輔 南冥從遊
강개암: 이름은 익, 자는 중보. 남명과 교제함.
- 李履素: 名仲虎 字風后 明廟朝大儒
이이소: 이름은 중호, 자는 풍후. 명종대의 대유.
- 李文烈公兆年: 高麗忠惠王時人
문열공 이조년: 고려 충혜왕 때 사람.

황덕길이 ‘先生’이라고 표현한 것은 극존칭에 해당하는데, 퇴계 이황과 圃隱 鄭夢周, 寒暄堂 金宏弼, 一蠹 鄭汝昌, 靜庵 趙光祖, 晦齋 李彥迪 등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大儒’라고 분류한 경우는 ‘先生’이라고 호칭한 인물들이 대부분 이에 속하고, 南冥 曹植의 경우 선생이라고 호칭은 하지 않았지만 大儒라고 소개했다. ‘名儒’라고 한 경우도 있는데 ‘大儒’보다는 한 등급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李仲虎(1512~1554)의 경우 조선 전기의 유학자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여러 제자를 양성했으나²⁴⁾ ‘大儒’라고 불리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듯 한데, 황덕길은 이황과 같은 등급으로 인식하여 이렇게 불렀다. 이것은 영남사림의 상징적 존재인 佔畢齋 金宗直을 ‘先生’이라고 부르지 않고 ‘名儒’라고 한 것과 비교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栗谷 李珥를 ‘先生’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물론, 단지 ‘儒臣’으로 분류한 것은 아무래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이의 『擊蒙要訣』을 인용하는 첫 번째 예에서 ‘李氏擊蒙要訣’이라고 말한 것과 함께 생각해 볼 때, 황덕길이 이이를 폄하하려는 생각은 없었겠지만, 선배 학자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균형을 잃은 결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인용 인물이 관료 출신이면 ‘賢相’, ‘名相’에서부터 ‘儒臣’, ‘名臣’, ‘相臣’, ‘節臣’, ‘忠臣’, ‘直臣’, ‘將臣’ 등으로 나누어 불렀는데, 李舜臣은 ‘將臣’이라고 했다. 일반 선비들도 ‘儒士’, ‘高士’, ‘名士’, ‘直士’ 등으로 구분하여 그 인물의 일생과 행적에 적합한 분류를 시도하였다. 金后稷의 경우에는 신라 지증왕의 아들(新羅智證王之子)이라고 한 예도 있다.

권1 嘉言上의 <鄭困齋學令條>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所求乎子以事父 所求乎臣以事君 所求乎弟以事兄 所求乎朋友先施之 右盡人倫之要
敬以直內 義以方外 以義制事 以禮制心 右處心行事之要
尊德性而道問學 致廣大而盡精微 極高明而道中庸 溫古而知新 敦厚以崇禮 右盡學問之要
寬而栗 柔而立 愿而恭 亂而敬 擾而毅 直而溫 簡而廉 剛而塞 強而義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右變化氣質之要
所惡於上毋以使下 所惡於下毋以事上 所惡於前毋以先後 所惡於後毋以從前 所惡於右毋以交於左 所惡於左毋以交於右 右盡待人之要
樹木以時伐焉 禽獸以時殺焉 啓蟄不殺 方長不折 右盡愛物之要

이것은 困齋 鄭介淸의 문집인 『愚得錄』 권2, 「序記」의 <學令條>이다 원문에

24) 『典故大方』 권3, ‘履素齋李仲虎門人條’에 18명의 문인이 수록되어 있다.

각 항목의 끝에 小字로 내용을 요약한 말이 있는데 『동헌학칙』에서 인용하면서 小字까지도 그대로 인용하여 원문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²⁵⁾ 정개청은 호남의 선비로서 나중에 정여립의 모역사건에 연루되어 유배지인 함경북도 경원에서 죽은 사람이다. 黨色이나 학자로서의 지명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편찬의도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정하는 황덕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동헌학칙』은 두 개의 근원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는 下學을 존중하는 학문적 자세에 근거를 둔 초학자의 교육교재를 만들겠다는 의지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교육적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부터였던 것이다.

3. 三書의 저술 과정 및 의의

3.1 英祖의 『小學』 애호

三書의 저술 배경을 자세히 고찰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사상적, 사회적 배경을 살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학류 서책의 유행에 관해 시대의 상황을 살펴볼 때, 영·정조 대의 실학적 분위기 속에서 다수 출간되기도 했지만,²⁶⁾ 英祖가 『小學』을 애호했다는 사실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영조는 ‘好學의 主’였는데, 『소학』에 대한 애호는 특별했다.

- 장령 呂光憲이 상소하여 中廟朝의 고사에 의하여 영남지방에서 『小學』의 책을 간행하여 유생들에게 공부하도록 권장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²⁷⁾

25) 『愚得錄』의 원전과 대조해 본 결과, 右盡學問之要와 右處心行事之要의 순서가 바뀌어 수록되어 있다.

26) 丁淳陸(1989), 205.

27) 『朝鮮王朝實錄』 영조 40권, 11년(1735 을묘) 7월 25일 기사.

- 內局에서 입사하였다. 우부승지 任琰에게 御製 『小學指南』의 小識를 쓰라고 명하였다.²⁸⁾
- 20년 갑자 춘 정월에 『小學宣政殿訓義』를 찬집하였다. 왕께서 유신들에게 말씀하기를, “『소학』은 내가 평생 동안 존신한 글이다. 내가 世宗朝의 『思政殿訓義』를 본떠 훈포의 사실과 先儒의 성명, 出處를 集解 아래에 나누어 풀이하여 보는 데에 편리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유신을 불러 친히 參證하시고 완성되고 나서는 찬성 朴弼周에게 보여 거듭 교정하게 하여 세상에 유행시키셨다.²⁹⁾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영조는 『소학』을 존중하였고, 스스로 『小學指南』과 『小學宣政殿訓義』를 편찬할 정도로 이에 대한 소양이 깊었다. 여기에 실학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더해져 소학류의 편찬을 유행하게 하는 풍조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三書의 편찬 과정

황덕길의 소학류 三書인 『東賢學則』, 『日用輯要』, 『初學可考』는 같은 근원에서 시작된 하나의 서책이 각각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책을 편찬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는 안정복이 제공했다. 안정복은 학문의 근원이 下學에 있음을 강조했으며, 스스로 『下學指南』을 지어 모범을 보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황덕길은 먼저 『동현학칙』을 편찬하고(37세, 1786, 丙午, 正祖 10), 다음 해에 『日用輯要』를 편찬했으며(38세, 1787, 丁未), 곧이어 『初學可考』를 편찬하였다.³⁰⁾

28) 『朝鮮王朝實錄』 영조 107권, 42년(1766 병술) 1월 12일 기사.

29) 『朝鮮王朝實錄』 영조 127권, 행장.

30) 필자는 『初學可考』를 고찰하면서 이 책의 편찬이 『일용집요』의 편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앞의 논문 참조), 『동현학칙』을 포함하여 三書의 편찬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초학가고』의 편찬이 가장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두 책과 『초학가고』의 편찬이 시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三書는 초학자들의 교재를 목적으로 편찬했다는 점에서 같은 의의가 있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동현학칙』은 우리나라 선현들의 嘉言과 善行을 수집하여 초학자들이 피부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학문의 길에서 추구해야 할 대원칙을 제시했다. 그런데 『일용집요』는 이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초학자들이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유학의 가르침에 대해 ‘庸言’과 ‘庸德’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18편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을 편찬한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덕목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전의 학자들이 제시한 교육의 내용을 선별하여 모아 놓은 것인데, 모두 중국의 유학자들이 말한 내용을 발췌하여 모아 놓았다.

『초학가고』의 경우는 위의 두 책과 또 다르다. 황덕길은 이전의 훈몽교재를 살펴보면, 그리고 『동현학칙』이나 『일용집요』와는 달리 더욱 기초적인 초학자 교육 교재를 편집·저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동현학칙』이나 『일용집요』는 유학자로서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고 일상에서의 행동규범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초학가고』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동들에게, 유학을 공부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황덕길은 가장 기초적인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이로 인해 이 책이 저술되었을 것으로 본다.³¹⁾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황덕길의 소학류 三書는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 서책들은 후대의 소학류 편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3.3 후대에의 영향

황덕길의 三書에 영향을 받은 소학류 서책의 대표적인 예로 陽田 李祥鎬의 『東學』과 進溪 朴在馨의 『海東續小學』, 金亨在의 『大東小學』 등을 들 수 있다. 이상호의 『동학』은 『동현학칙』의 取字인 것으로만 보아도³²⁾ 서로의 관계를 알

31) 김순희, “하러 황덕길의 『초학가고』 고찰,” 『書誌學研究』 제58집(2014. 6), 232.

32) 丁淳睦(1989), 206.

수 있다. 이상호는 이황의 13대손으로서 『동헌학칙』을 藍本으로 황덕길의 제작 의식을 계승하고 있다.³³⁾

박재형의 『해동속소학』은 황덕길 → 허전 → 박재형으로 이어지는 師承 관계를 고려하거나 책의 제목 및 내용을 살펴볼 때, 『동헌학칙』의 정수를 이어받은 서책 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자료조사를 해 본 결과, 『해동속소학』의 405편 중에서 242장에 이르는 약 60%가 『동헌학칙』에서 그대로 취해온 것이었다.³⁴⁾ 황덕길과 박재형의 사이에서 긴밀한 역할을 한 사람이 허전이다.

천리 먼 길에서 보낸 편지가 두 해 만에 도착했으니 한편으로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다. 『小學』 책 한 권에서 독실한 공부와 실천의 뜻을 알 수 있으니 기쁨을 이길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善行이 부족하여 버려지고 빠진 단서가 없지 않다. 다시 널리 살펴서 첨가하여 책을 완성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동헌학칙』을 보낸다. 이것은 하려 선생이 편찬한 것이니 이것으로 빠진 것을 보충하면 어떻겠는가?³⁵⁾

위의 편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박재형이 나름대로 『해동속소학』의 편찬을 진행하다가 스승인 허전에게 보고하였는데, 허전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스승인 황덕길의 『동헌학칙』을 보내주어 완성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김형재(1909~1988)는 일제강점기의 유학자로서 단군 조선 이후 孝와 國粹思想을 통하여 저항적인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이 책을 편찬하였다.³⁶⁾ 기본적으로 『소학』의 체계를 본받았으면서도 우리나라 인물들의 언행 중에서 기록할 만한 것을 수집하여 편찬하였다는 점에서 『동헌학칙』의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동헌학칙』은 후대 소학류 편찬서의 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33) 李貞和, “退溪 李滉의 言行錄에 관한 研究 - 『東學』關聯 書冊을 中心으로 -, ” 『한민족어문학』 제46집(1989), 235.

34) 金延信(2003), 2.

35) 『性齋先生文集』 권5, 『書』, <答朴在馨>. “千里之書 二歲以至於 旋慰旋悵 小學一篇 可見篤工實踐之意 不勝喜悅 但欠東賢善行 不無遺漏之端 更加博考 添入成書 尤好 東賢學則付送 此是下廬先生所編也 采以補闕如何.”

36) 徐星宇(2006), 14.

3.4 의의

조선 초기부터 이어져온 『소학』을 존중하는 전통과 실천학문인 ‘下學’을 추구하는 경향이 초학자의 교재를 편찬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어져 나타난 결과물이 안정복의 『下學指南』이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과 편찬서의 제작이 제자인 황덕길에게 그대로 이어져 『동현학칙』과 『일용집요』, 『초학가고』의 편찬을 가능하게 했다. 따라서 안정복의 생각은 황덕길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황덕길은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우리나라 선현들의 嘉言과 善行 만으로 책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여 다양한 종류의 서책을 참고한 끝에 마침내 『동현학칙』을 완성하였으니, 이것은 조선 후기의 출판문화사상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학자들이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가르침을 정리한 『일용집요』와 초학자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모아 놓은 『초학가고』를 편찬함으로써, 소위 三書を 완성하였다.

황덕길은 학문이 經書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이 점은 주자의 학설을 교조적으로 맹종하고 있었던 당시의 학문 풍토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³⁷⁾ 학문의 목표가 성현을 본받아 도덕적 성취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때에 중국의 지식인들에게서 그 典範을 찾지 않고 우리나라의 선현들에게서 학문의 지향점을 발견하려고 시도하였고, 그것을 서책으로 완성했다는 사실은 황덕길이 조선후기의 출판문화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황덕길이 三書を 편찬하면서 당시에 간행·유통되고 있던 서책을 거의 대부분 섭렵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황덕길은 『동현학칙』에서 인용한 書目を 정확하게 기재해 놓음으로써 책임있는 도서편찬자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조선후기에 실재했던 도서의 현황을 알 수 있게 된다.

37) 鄭景柱, “小訥 盧相稷의 생애와 학문 경향,” 『東洋漢文學研究』 제18집(2003), 214.

4. 結 言

본고는 下廬 黃德吉(1750~1827)의 소학류 三書가 갖는 특징과 의의를 고찰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황덕길의 소학류 三書는 『東賢學則』, 『日用輯要』, 『初學可考』를 말한다. 이 서책들은 편저자가 일관된 편찬의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므로 황덕길의 저술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황덕길은 스승인 順菴 安鼎福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소학류 저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가 이 3종의 서책으로 완성되었다.

황덕길은 먼저 『동현학칙』을 편찬하고(37세, 1786), 다음 해에 『日用輯要』를 편찬했으며(38세, 1787, 丁未), 곧이어 『初學可考』를 편찬하였다. 『동현학칙』은 우리나라 선현들의 嘉言과 善行을 수집하여 초학자들이 피부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학문의 길에서 추구해야 할 대원칙을 제시했다. 『일용집요』는 유학자들이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중국의 유학자들이 말한 내용을 발췌하여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동현학칙』과 다르다. 『초학가고』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동들이 유학을 공부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황덕길의 三書에 영향을 받은 소학류 서책의 대표적인 예로 陽田 李祥鎬의 『東學』과 進溪 朴在馨의 『海東續小學』, 金亨在의 『大東小學』 등을 들 수 있다. 조선후기 출판문화사상의 한 양상이기도 한 소학류 서책의 출현이 황덕길의 三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황덕길은 우리나라 선현들의 嘉言과 善行 만으로도 초학자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책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여 다양한 종류의 서책을 참고한 끝에 마침내 『동현학칙』을 완성하였으니, 이것은 조선 후기의 출판문화사상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학문의 목표가 성현을 본받아 도덕적 성취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때에 중국의 지식인들에게서 그 典範을 찾지 않고 우리나라의 선현들에게서 학문의 지향점을 발견하려고 시도하였고, 그것을 서책으로 완성했다는 사실은 황덕길이 조선후기의 출판문화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황덕길이 三書を 편찬하면서 당시에 간행·유통되고 있던 서책을 거의 대부분 섭렵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황덕길은 『동현학칙』에서 인용한 書目を 정확하게 기재해 놓음으로써 책임 있는 도서편찬자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 『東賢學則』.
- 『性齋先生文集』.
- 『小訥先生文集』.
- 『小學』.
- 『順菴集』.
- 『愚得錄』.
- 『典故大方』.
- 『朝鮮王朝實錄』.
- 『寒岡集』.

강동욱. “性齋 許傳의 江右地域 門人 考察.” 『南冥學研究』 제31집(2011). 205-265.
姜世求. “下廬 黃德吉과 順菴系列 星湖學派의 興起.” 『東亞研究』 제34호(1997). 207-233.

- 김순희. “황덕길의 독서론 고찰.” 『書誌學研究』 제53집(2012. 12). 221-238.
- 김순희. “하러 황덕길의 『초학가고』 고찰.” 『書誌學研究』 제58집(2014. 6). 227-246.
- 김순희. “하러 황덕길의 『일용집요』 고찰.” 『書誌學研究』 제59집(2014. 9). 149-174.
- 金延信. “18세기 초학교재 東賢學則 研究.”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教育大學院. 2003.
- 徐星宇. “小學 續編類에 관한 研究 - 『東賢學則』·『海東續小學』·『大東小學』을 중심으로 -.” 碩士學位論文. 公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6.
- 柳鐸一. “下廬先生文集』刊行的 出版社會學的 接近.” 『書誌學譜』 제10호(1993. 9). 27-44.
- 李貞和. “退溪 李滉의 言行錄에 관한 研究 - 『東學』關聯 書冊을 中心으로 -.” 『한민족어문학』 제46집(1989). 235-252.
- 이채구. “안정복의 『하학지남』.” 『순암 안정복의 서학인식과 교육사상』. 순암선생 탄신300주년 기념사업회, 2012.
- 鄭景柱. “小訥 盧相稷의 생애와 학문 경향.” 『東洋漢文學研究』 제18집(2003). 195-226.
- 丁淳陸. “東賢學則에 나타난 退溪의 教育觀.” 『民族文化論叢』 第10輯(1989. 12). 205-233.
- 曹建鎬. “黃德吉과 東賢學則에 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啓明大學校 教育大學院. 1982.
- 조성애. “순암 안정복의 하학론.” 『한국교육사학』 제32권 제1호(2010. 4). 195-220.